

  
**VACHERON CONSTANTIN**  
GENÈVE, DEPUIS 1755

REFERENCE  
**57260**

레퍼런스 57260

**지금껏 존재하지 않았던 가장 복잡한 시계 제작**



레퍼런스 57260은 이제껏 인류가 상상조차 할 수 없던 복잡한 컴플리케이션과 혁신적 테크닉을 더블-다이얼에 담은 메종의 역작이다. 이 시계를 완성하기 위해 메종의 워치메이커 마스터 3명이 꼬박 8년의 세월을 투자했다. 워치메이킹의 가장 클래식한 법칙을 모두 따랐지만 여기에 21세기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더해져서 탄생된 이 시계는 전적으로 독창적이며 유일무이하다. 총 57개의 컴플리케이션을 탑재하고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이 완전히 새롭고 혁신적이다.

멀티플 캘린더와 더블 레트로그레이드 라트라팡테 크로노그래프 등을 포함한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컴플리케이션들로 가득한 이 시계는, 모두 처음부터 다시 계산되고 디자인되고 개발되어 탄생한 완전히 새로운 무브먼트를 내부에 장착하였다. 그러므로 레퍼런스 57260에 탑재된 이 새 칼리버는 지금껏 존재하지 않던 완전히 새로운 독창성을 자랑한다. 또한 기존의 우리에게 친숙한 컴플리케이션의 메커니즘조차도 새롭게 수정 및 디자인, 재해석되는 과정을 통해 완성된 시계는 수많은 기능들의 완벽한 조화를 뽐낸다. 레퍼런스 57260의 컨셉을 개발하고 이를 실제로 구현시키는 데는 단순히 엄청난 창의력과 상상력만 동원된 것이 아니라 가장 고난이도의 수학적, 공학적 이해력과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는 극한의 시계제조 기술력이 요구되었다. 이 제품의

완성 과정에서 투자된 장기간의 리서치와 연구, 워치메이커들과 다양한 마스터 장인들이 발휘한 필생의 테크닉과 장인 정신은 워치메이킹 업계에 있어 1920 년 대 이후 가장 위대한 업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57 개의 컴플리케이션에는 이제껏 워치메이킹에서 공개되지 않았던 혁신적이고 새로운 주요 기능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각각의 기능을 포함한 시계의 구조의 모든 부분에서 바쉐론 콘스탄틴의 혁신적인 면모를 찾아볼 수 있으며 그 결과 메종 역사상 가장 복잡한 시계가 완성되었다.

각 면이 유광 폴리싱 처리된 베젤이 연결된 18 캐럿 화이트 골드 케이스는 완벽하게 균형 잡힌 디자인으로 우아한 느낌을 자아낸다. 케이스에는 세 개의 와인딩 크라운이 부착되었는데, 각 다른 기능을 지닌 크라운의 상태가 디스플레이 창을 통해 표시된다. 와인딩 크라운의 동축(co-axial) 버튼은 더블 레트로그레이드 크로노그래프의 스타트/스톱과 원점으로 돌아가는 기능을 담당하고 11 시 방향의 푸쉬버튼은 라트라팡테 크로노그래프가 작동하거나 다시 시작하도록 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특히 4 시 방향의 케이스 밴드에 위치한 히든 플러쉬-피트 알람 와인딩 크라운은 이 시계의 우아하고 클래식하며 클린한 라인을 해치지 않는 새로운 디자인을 제공한다.

각 면의 다이얼은 순은 소재로 이루어졌고, 움직이는 디스크는 가벼운 알루미늄 소재로 제작되어 각 기능의 작동 시에도 오직 최소한의 에너지만 소모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이와 동시에 천문대나 실험실 등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극도로 정확한 레귤레이터 시계에서 그 디자인을 차용한 다이얼은 시, 분 초를 각각 별도로 분리된 챕터 링에 표시하는 레귤레이터 스타일을 채택하였다. 바쉐론 콘스탄틴의 워치메이커 장인들이 개발하여 최초로 선보이는 이와 같은 형태의 다이얼은 혁신적이면서도 흥미로운 시계 디스플레이를 가능케 한다.

## 히브리 퍼페추얼 캘린더

극도로 복잡한 수학적, 공학적 계산으로 제작된 히브리 퍼페추얼 캘린더는 오늘날 워치메이킹 업계의 가장 위대한 업적 중 하나로 여겨진다. 그레고리안 캘린더와의 차이점과 장기간 단위로 변화하는 주기 때문에 지금까지 히브리 퍼페추얼 캘린더를 시계에 접목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다. 태양력과 태음월까지 모두 고려한 고난이도의 수학적 계산을 통해 완성된 작동 방식은 물론, 이를 논리적이면서도 우아한 방법으로 다이얼 위에 디스플레이하여 가독성까지 높은 천재적인 워치메이킹 기술력을 보았을 때, 이 제품은 현대 시계 제조사에 있어 가장 혁신적인 걸작품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히브리 퍼페추얼 캘린더는 19 년을 기본 단위로 하는 메톤 주기 Metonic cycle 의 원칙을 따른다. 이 19 년 주기는 태양년과 태음월이 거의 정확하게 일치하는 시점에 근간을 두었다. 이 시계는 이른 바 “황금 수”라고도 불리는 “메톤 주기”를 다이얼의 3 시 방향 중앙에 크로노그래프 시 표시와 함께 디스플레이 한다. 매해 그레고리안 캘린더에서 표시되는 성스러운 안식일이 6 시 방향에 레트로그레이드 핸드로 표시되어 매 19 년마다 처음 시작점으로 되돌아간다.

또한 12 개월의 태음년을 태양력과 일치시키도록 하기 위해 “13 번째의 달”인 윤달이 19 년 단위로 7 번 추가된다. 9 시 방향에 위치한 크로노그래프 분 표시 창에 있는 핸드가 12/13 둘 중의 하나를 가리킴으로써 현재가 12 번째 달인지 혹은 13 번째 달인지를 알려준다.

히브리 캘린더에서는 29 일 혹은 30 일이 교대로 이어지는 고정된 태음월이 존재한다. 그레고리안 캘린더로 10-11 월에 해당하는 헤시반 Cheshvan 과 11-12 월에 해당하는 Kislev 키슬레브는 해(年)에 따라서 29 일이나 30 일로 이루어진다. 여기에서 스스로 날짜를 조정하는 핸드는 안식일과 콘스탄트 세컨즈를 표시하는 섹터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양쪽에 자리잡은 두 개의 창이 히브리 캘린더의 월력과 일력을 보여준다.

안식일 섹터 아래에 네 자리로 표시되는 일반식 히브리 캘린더는 이 세상이 시작된 기원 전 3760 년을 기준으로 날짜를 계산한다. 히브리 캘린더로 보았을 때 2015 년은 여기에 3760 년을 더한 5775 년이 된다. 2015 년 9 월에 유대인들의 새해가 시작되는데 이 때가 바로 히브리 캘린더로 5776 년의 시작인 것이다. 초막절(티쉬레이 Tishrei)이 히브리 캘린더의 첫 번째 달이다.

아워 챗터 링의 중앙에는 문 페이지를 표시하는 4 개의 달 모양이 자리하고 있으며 29.5305582 일 주기의 월령을 표시하는 핸드가 있다. 바쉐론 콘스탄틴의 문페이지는 매 1027 년에 딱 한번만 조정이 필요하다.

## 더블 레트로그레이드 « 라트라팡테 Ratrapante » 크로노그래프

워치메이킹에서 전례 없는 기능이자 시각적으로도 아름다운 바쉐론 콘스탄틴의 레트로그레이드 라트라팡테(스플릿-세컨즈) 크로노그래프 기능은 완벽하게 혁신적인 구조와 디자인 안에 담겨 있다. 이것은 최초로 더블 레트로그레이드 기능과 결합된 라트라팡테 크로노그래프 시계이다. 이 새로운 크로노그래프는 두 개의 핸즈가 같은 축에서 똑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기존의 스플릿-세컨즈 크로노그래프와 읽는 방식이 동일하나, 독특하게도 그 두 개의 핸즈가 만나는 일이 결코 없이, 다이얼의 양쪽에서 각자 움직인다. 이러한 점에서 이 새로운 크로노그래프는 “분리형” 스플릿-세컨즈 크로노그래프라 칭할 수 있을 것이다. 바쉐론 콘스탄틴은 이 특별한 시계를 제작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새로운 크로노그래프 메커니즘을 개발하였다. 더불어 두 개의 길고 섬세한 크로노그래프 핸즈를 디자인하고 이들의 무게와 조화를 측정하여 보다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크로노그래프 기능을 최적화시켰다. 브랜드의 설립 260 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 이 시계는 미세한 디테일과 극도로 작은 부분 하나까지도 전부 고도로 복잡한 계산과 워치메이킹 기술이 적용되어 극히 정교하게 제작되었다. 30 분과 12 시간 단위로 시간 측정이 가능한 이 시계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크로노그래프 기능을 작동하게 되면 12 시간 동안 정확한 시간을 썰 수가 있다.

## 웨스트민스터 차임, 알람 그리고 특별한 나이트-사일런스 기능

크로노그래프 섹터와 아워 챗터 링 사이의 표시창을 통해 차임의 모드, 알람 스트라이킹의 모드 그리고 알람 파워 리저브를 표시한다. 이 모두 최상의 정교함과 독창적인 워치메이킹 기술로 완성된 기능이라 할 수 있다.

### 차임

이 시계는 3 가지의 스트라이킹 모드를 제공한다:

1. 스트라이킹 - 실제 웨스트민스터 차임과 같이 매 15 분 단위로 자동적으로 소리를 알리는 이 메커니즘은 다섯 개의 해머가 다섯 개의 톤으로 완벽하게 조정된 합금 소재의 공을 치면서 소리를 울리는 방식까지도 실제 영국 런던에 위치한 국회의사당 내의 “빅 벤 Big Ben”과 동일하여 웨스트민스터 차임이라 불린다.

2. 나이트 사일런스 - 밤 10 시부터 오전 8 시까지 자동적으로 차임이 울리지 않도록 세팅되어 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 하단에 설명되어 있다).

3. 사일런스 - 필요치 않으면 차임이 울리지 않도록 끌 수 있다.

여기에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의 기능이 추가로 장착되어 있다; 그랑 소네리 - 시각과 15 분 단위를 모두 알려준다. 뽀띠 소네리 - 15 분 단위를 알려주는 이 기능은 오직 정시에만 시간을 알려준다. 사용자가 원할 때 언제든지 차임이 울리도록 조정이 가능하다.

## 나이트-타임 사일런스

이 모델은 특별히 개발된, 자동으로 작동하는 “나이트-타임 사일런스” 기능을 통해 더욱 특화되었다.

이 시계에서 나이트 사일런스가 유효한 시간대는 사용자의 주문에 따라 미리 설계된 밤 10 시부터 아침 8 시 사이로, 그 사이에는 자동으로 차임이 울리지 않는다. 이와 같이 바쉐론 콘스탄틴에서 시계를 제작할 때, 나이트-타임 사일런스의 시간대까지 설정하여 주문자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이 시계는 시간대를 별도로 조정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작동하는 최초의 혁신적인 나이트 사일런스 기능을 갖추게 된 것이다.

## 알람

일반적인 차임 메커니즘에서 한 단계 나아가서, 이 모델은 분리된 파워 리저브 표시 기능과 더불어 알람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지녔다. 싱글 해머가 싱글 공을 쳐서 소리를 내는 전통적인 알람 방식 혹은 웨스트민스터 카리용 풀 차이밍 알람 방식 중에 선택이 가능하며, 후자 안에서는 다시 그랑 소네리 혹은 뽀띠 소네리 중 선택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알람 기능은 와인딩 크라운을 조정하여 세팅 가능하다. 플러쉬-피트 와인딩 버튼은 케이스 밴드 안쪽에 자리잡고 있으며 다이얼 위에서는 아워 챕터링 양 옆의 표시창에서 바로 이 알람 기능을 표시한다.

## 세컨드 다이얼과 그 밖의 기능들

천체 기능 뿐만 아니라 수많은 독창적이고 주요한 시스템이 오직 이 시계 한 점을 위하여 개발되었다. 디지털 월드 타임 디스플레이로 조정하는 12 시간 세컨 타임 존, 더블 퍼페추얼 캘린더, 혼천의(渾天儀) 입체 투르비옹 등의 기능이 바로 그 것이다.

다이얼 상단에 자리잡은 파란 별자리표는 사용자의 위치를 기준으로 보여지는 밤하늘과 성좌를 표시하고 있다. 바깥 쪽으로는 매 월말 시작점으로 다시 “플라잉 백”하여 돌아가는 퍼페추얼 캘린더 레트로그레이트 데이트 핸드 또한 확인 가능하다. 천체 차트를 기준으로 왼쪽에는 요일을, 오른쪽에는 월과 함께 윤년 주기의 1 에서 4 까지를 표시해주는 창이 있다. 다이얼 가장자리로는 3 가지 천체 스케일을 확인할 수 있는데 중앙의 골드 핸드로 각 기능을 표시한다. 가장 바깥쪽에는 월과 일력을 보여주고 중앙 스케일에서는 별자리와 더불어 춘분과 추분, 하지와 동지를 표시하고 있다. 가장 안쪽의 스케일은 사계절을 보여준다.

태양시와 표준시 사이에서 발생하는 불일치를 보여주는 균시차는 1 년 중 많으면 16 분 33 초까지 앞서가거나 (11 월 3 일 경) 14 분 6 초 가량 늦어질 수 있는 (2 월 12 일 경) 차이를 표시한다. 태양시와 표준시는 1 년에 딱 4 회 일치한다. 투르비옹 케이지 양 옆으로는 사용자가 세팅한 장소를 기준으로 한 낮의 길이와 일출 시간, 밤의

길이와 일몰 시간이 보여진다. 이러한 기능은 사실 낮과 밤의 시간으로 하루의 길이를 계산하는 그레고리안 캘린더와 관계가 있다.

10 시 방향에는 이례적으로 12 시간 세컨 타임 존 섹터가 자리하고 있다. 낮과 밤을 함께 표시해주는 이 세컨 타임 존은 24 개의 도시 및 국가 그리고 각각에 해당하는 시간대를 선택할 수 있는 월드 타임 기능이 디지털 방식으로 표시된다. 그리고 이 시간들은 모두 그리니치 표준시에서 비롯되었다. 완전히 새로운 이 12-아워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월드 타임 메커니즘과 디스플레이 방식은 1935 년 루이 코티에 Louis Cottier 에 의해 지정된 이후 오늘날 널리 이용되는, 전 세계 24 개 도시의 서로 다른 시간대를 표시하는 월드 타임 시스템 이후로 새롭게 개발된 것이다.

### 듀얼 퍼페추얼 캘린더 메커니즘

이 시계에 탑재된 기능 중 가장 주요한 기능 중 하나인 퍼페추얼 캘린더 시스템은 바쉐론 콘스탄틴의 워치메이커 장인들에 의하여 고안되었다. 고도로 복잡한 수학적 계산을 완벽하게 마스터한 바쉐론 콘스탄틴은 이러한 수리적 논리를 워치메이킹 메커니즘에 적용시켜 수많은 다른 기능들과 조화를 이루게끔 하였다. 이 시계는 반대편 다이얼에 표시된 히브리 퍼페추얼 캘린더를 포함하여 총 세 가지의 서로 다른 퍼페추얼 캘린더를 디스플레이를 제공한다. 그레고리안 퍼페추얼 캘린더를 읽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전통적인 방식의 그레고리안 캘린더이고 다른 하나는 ISO 8601 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비즈니스 캘린더로, 52 주와 7 일로 구성되었다.

그레고리안 캘린더 시스템에서는 윤년과 윤월이 자동으로 계산되며 레트로그레이드 데이트 디스플레이, 날짜와 개월 표시 그리고 1 부터 4 까지 윤년 사이클을 나타내는 날짜가 표시된 윤년 윈도우를 볼 수 있다. ISO 8601 비즈니스 캘린더는 보통 글로벌 금융 업계에서 쓰이는 달력으로, 과세년도의 회사 회계일이나 봉급 지급일 혹은 임차료 등을 주 단위로 알아보기에 편리하다. 이 달력의 용도는 날짜와 시간을 나타내는 보다 명료한 방식을 제공하고, 숫자로 표시되는 날짜와 시간의 오역을 막는 것인데 특히 나라 별로 숫자와 시간을 읽고 쓸 때 다른 방식을 차용하는 경우도 고려하였다. ISO 시스템 내에서는 24 시간 시스템을 사용하여 시간이 표시되며 필요할 경우 타임 존 정보도 주어진다. 이와 같은 두 기능들이 모두 다이얼 위에서 확인 가능하다.

ISO 8601 모드로 달력을 볼 때는, 일년 52 개의 주 중 지금이 몇 번째 주간인지와 무슨 요일인지가 전통적인 달력 상의 월과 날짜보다 중요하게 여겨진다. 다이얼 중앙에서 주간과 월 표시를 읽을 수 있고, 다이얼 위쪽의 작은 창에 표시되는 1(월요일)부터 7(일요일)까지의 숫자로 요일을 알 수 있다.

ISO 시스템은 400 년간의 풀 사이클과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1 주 7 일간의 사이클로 움직인다. 그러나 ISO 캘린더로는 새해가 목요일(윤년에는 수요일이나 목요일)인 경우에 일년에 52 개의 주가 아니라 53 개의 주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5~6 년에 한번씩 발생한다. ISO 캘린더에서 첫 번째 주는 그 해의 제일 처음 목요일을 포함하며 언제나 1 월 4 일을 포함해야 한다. ISO 캘린더 상으로 그 해의 마지막 주는 그 해의 마지막 목요일을 포함하며 언제나 12 월 28 일을 포함해야 한다. 이 시스템은 유저로 하여금 달력을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는 옵션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달력이 목요일 9 월 17 일을 표시한다면, ISO 캘린더는 작은 창에 4 라고 표시하며 (목요일이 4 번째 날이기 때문) 주력 다이얼에는 38 번째 주라고 표시되는 식이다.

이 혁신적인 시스템은 ISO 모드를 전통적인 캘린더 모드로 변경 가능하게끔 되어 있다. 캘린더 이어는 1 월 1일부터 12 월 31 일까지에 해당하는 기간이다. 따라서 1 월 1 일에 해당하는 일력이 캘린더 이어에 표시된다. 애뉴얼 캘린더 디스플레이에서 한 해의 시작이 1 월 1 일 목요일이었다면 캘린더에서는 W1 와 같은 방식으로 주를 표시하고 1 로 요일을 표시한다(목요일은 4 번째 날이 된다).

#### **바쉐론 콘스탄틴의 혼천의(渾天儀) 입체 투르비용**

이 혼천의 입체 투르비용 케이스는 천체 차트 바로 아래인 6 시 방향에서 확인 가능하다. 바쉐론 콘스탄틴 인하우스에서 새롭게 개발된 이 경이로운 혼천의 투르비용은 심미적인 면에서나 기술적인 면에서나 워치메이킹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길 놀라운 걸작이다. 바쉐론 콘스탄틴의 워치메이킹 장인들은 세 방향으로 동시에 섬세하게 미끄러지듯 움직이며 끊임없이 3 차원으로 회전하는 구형의 우아하고 환상적인 입체 투르비용을 탄생시켰다. 또한 워치메이커들은 특별한 이 메커니즘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구체의 밸런스 스프링을 선택하였고 이는 투르비용의 메커니즘에 시각적 우아함을 선사할 뿐만 아니라 시계의 정확도까지 더욱 향상시켜주었다.

이 투르비용에 혼천의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서로 맞물리는 원형과 링의 외관이 고대에 천체의 운행과 그 위치를 측정하던 천문관측기 혼천의(渾天儀)와 흡사하기 때문이다. 천체 기능은 이 시계의 세컨 다이얼 면에 자리 잡아 별과 태양, 황도의 정확한 움직임을 보여준다. 투르비용 케이스의 프레임은 초경량 알루미늄으로 제작되었으며 여기에 내장된 이스케이프먼트는 바쉐론 콘스탄틴의 말테 크로스 로고 모양에 맞춰 독특하게 설계되었다. 투르비용이 회전하는 동안 매 15 초마다 말테 크로스 로고가 전면으로 드러나게 된다.

극도로 정교하고 최상의 정확도를 구현하는 이 혼천의 입체 투르비용은 밸런스 휠, 헤어 스프링 그리고 이스케이프먼트의 팔레트 포크에 미치는 중력의 영향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초경량 소재를 채택하였다. 이 투르비용은 근본적으로 회전하는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으며, 1 분에 1 번 전체적으로 회전하는 이스케이프먼트가 고정된 “케이지”이며, 3 개의 중심축이 존재하는 만큼 이스케이프먼트는 한번에 삼 면으로 회전한다. 이스케이프먼트의 제작에 있어서도 구체형의 헤어스프링과 다이아몬드를 사용한 팔레트라는 2 가지 혁신적인 발명이 반영되었다.

[www.reference57260.com](http://www.reference57260.com)

<https://youtu.be/InYrmk3Ezb8>

**TECHNICAL DATA**

**Atelier Cabinotiers Reference 57260**

|                               |   |
|-------------------------------|---|
| <b>Reference</b>              | 57260/000G-B046<br>Hallmark of Geneva certified timepiece   |
| <b>Calibre</b>                | 3750<br>Developed and manufactured by Vacheron Constantin<br>Mechanical, manual-winding<br>72 mm (31'''½) diameter, 36 mm thick<br>Approximately 60 hours of power reserve<br>2.5 Hz (18,000 vibrations/hour)<br>More than 2'800 components<br>242 jewels   |
| <b>Calibre plates:</b>        | Plate 150: Chronograph<br>Plate 250: Gregorian perpetual calendar<br>Plate 350: Chronograph & Hebraic perpetual calendar<br>Plate 550: Astronomic calendar  |
| <b>Indications</b>            | Time functions (6)<br>Perpetual calendar functions: Gregorian and Hebraic (15)<br>Astronomic calendar functions (9)<br>Lunar calendar function (1)<br>Religious calendar function (1)<br>Chronograph (3 column-wheels) functions (4)<br>Alarm functions (6)<br>Westminster Carillon striking functions (8)<br>Further functions (7) |
| <b>Case</b>                   | 18K white gold<br>98 mm diameter, 50.55 mm thick  |
| <b>Dial</b>                   | Metal<br>Silvered opaline   |
| <b>Number of hands</b>        | Front: 19 / back: 12  |
| <b>Accessories</b>            | Delivered with a corrector pen & a magnifying glass   |
| <b>Additional information</b> | Unique piece crafted on demand<br>Total weight: 960gr   |